

2024 화성시청소년골든벨 예상 문제

11월 10일(일) 오후 2시, 화성시청소년수련관(유엔아이센터)에서 열리는

2024 화성시청소년골든벨에 출제되는 예상 문제 내용입니다.

퀴즈대회의 변별력을 위해 예상 문제 외 화성시 관련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1등을 위한 공부보다 아님, 우리 동네를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화성시 일반상식 #정책

- 화성시의 2024년 9월 기준 인구는 1,025,333명. 특례시 기준인 2년 연속 100만명 인구를 유지하여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가 출범한다. 화성시는 전국 5번째 특례시가 될 것이다.
- 화성시의 면적은 844km²로 경기도에서 2위로 넓다. 서울의 면적보다 1.4배 넓다.
- 송산그린시티는 녹색 생태도시를 내세운 한국수자원공사 개발 사업으로 시작하여, 2003년 시화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2005년 정식 명칭을 ‘송산그린시티’로 확정했다.
- 소나무는 화성시를 상징하는 나무이다. 소나무는 우리 시 모든 지역에 자라고, 단단하고 잘 썩지 않으며, 벌레가 잘 생기지 않고 휘거나 갈라지지 않는다.
- 화성시를 상징하는 새는 도요새 <알락꼬리 마도요>이다. 우리시에 날아오는 도요새 중 알락꼬리 마도요는 몸집이 크고, 화성 갯벌에서 관찰하기 쉬워 친근한 대상이다.
- 시민안전보험: 화성시는 2019년부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안전펜스의 역할을 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으로, 화성시는 2020년 11월부터 수도권 최초로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아동,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요금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 화성시를 상징하는 캐릭터는 코리요이다. 코리요는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의 이미지를 귀엽고 친근감 있게 표현하였다. 코리요는 화성시 전곡항 깊은 뺨 속에 1억 300만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공룡이 화성의 신비한 빛의 힘으로 주둥이에 별모양의 문양을 지닌 채 알에서 깨어났다는 스토리를 담아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의 이미지를 귀엽고 친근감 있게 표현했다.



- 위 그림은 화성시 도시브랜드이다. 회색은 균형과 침단을 상징하는 색으로 화성시의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오렌지색이 뜻하는 것은 활력과 에너지, 희망과 기쁨, 따뜻함을 상징한다.
- 화성시민의 노래에서 처음 시작하는 가사는 “바닷길이 열리는 첨단 행복한 도시~~”이다.
- 화성시에서는 화성의 미래를 선도할 지성과 인성을 갖춘 시민 양성을 위한 화성학, 시민학, 배움학 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 대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화성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 화성시 평생학습동아리는 공통된 주제에 관심이 있는 성인들이 스스로의 뜻에 따라 함께 배우고 학습하는 소모임으로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확대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모임이다.
- 동탄인덕원선은 화성 동탄역 ~ 용인 ~ 수원 ~ 의왕 ~ 안양 인덕원역 약 39km 구간이며 정류장 17개소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철도의 개통으로 동탄 1·2신도시의 철도교통 접근성이 개선됨은 물론이고,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체증 해소가 기대된다.
- 화성시의 대표기업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 이다.
- 2011년 5월 문을 연 화성시 향토박물관은 그간의 연구, 유물확보, 전시, 교육 등의 성과를 반영하고 향후 지향점을 고려하여 명칭을 바꾸었는데, 화성시의 역사자료를 발굴, 보존, 연구, 전시하는 화성시역사박물관이다.
-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하여 화성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형 지역화폐의 이름은 ‘희망화성지역화폐’이다.
- 화성시이음터는 화성시 학교복합화시설로 마을과 학교, 주민을 잇는 일곱 개의 특별한 놀이터로 세대간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곳이다.
- ‘시화호 간척사업’은 1987년 시작해서 1994년에 끝난 이 간척사업으로 오랜 세월 바닷물에 잠겨있던 지역이 육지가 되었고, 시화호 간척사업으로 인해 송산리 고정리 일대에서 공룡알 등지와 화석이 발견되었다.

#화성시의 섬

- 제부도는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신비의 섬으로 썰물때면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이 갈라져 섬을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곳이다.
- 국화도는 궁평항(화성시 서신면)에서 배를 타고 40분이면 들어갈 수 있으며, 걸어서 3시간 정도면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을 만큼 작은 섬이다.

#화성시의 항구

- 낙조가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 궁평항은 2008년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었다. 싱싱하고 맛 좋은 수산물들이 가득한 수산시장이 잘 갖춰져 있는 작은 항구로 이곳의 낙조가 아름다워 화성8경중의 하나이다.
- 전곡항은 지중해풍 엽서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푸른 바다와 하늘, 그리고 하얀 요트들이 멋진 장관을 이루고 있다.
- 매년 5월 말 ~ 6월 초에 화성시 대표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열린다.

#화성시의 생태명소

-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의 자람은 우리나라 5대명산의 식생대를 재현한 사계절 관으로 한옥형태의 유리온실관으로 조성된 백두대간관은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태백산등 우리나라 5대 명산을 미니어처로 조성해 높이별로 식물생태를 관찰할 수 있게 했다. 우리꽃식물원은 1,600여 종의 많은 토종식물을 보유하고 있다.
- 반석산 에코스쿨은 경기도 화성시가 도심에서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생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동탄1신도시 노작공원 내에 옛 LH홍보관을 재활용하여 건립하였다.

#지명

- 화성시 매향리 에는 긴시간 미군의 폭격훈련으로 극심한 소음과 위험에 노출되었던 쿠니 사격장이 있었다. 해안가를 따라 탄피와 폭탄파편이 즐비하게 떨어져 뒹굴던 그 땅에 2007년 ‘매향리 역사관’이 들어섰다.
- 2008년 9월 화성시 동탄신도시 개발에 앞서 중서부 지역 최대의 마을 유적이 발굴되었다. 이 유적은 화성시 청계동에 있으며, 대규모 수공업 생산마을로 110여기의 집터와 저장 구덩이 등의 주거지역과 가마 및 공방지 등의 생산 시설구역이 있었다. 이곳에는 현재 ‘청계중앙공원’이 조성되었다.
- 화성시 반송동에는 ‘탄요길’이 있다. ‘탄요’ 유적을 보존하고 공원을 세우면서 근처 길도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갖게 되었다. 탄요유적은 숲을 구워내던 가마였다.
- 화성시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동탄은 <동국여도>에 동진면(동북면)과 어탄면이 표시되어 있다. 어탄의 뜻은 ‘고기가 많이 서식하는 여울’을 끼고 있다는 뜻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현재의 ‘동탄’ 이름이 되었다.



- 화성시 서신면에는 고려시대부터 궁에서 관리하는 땅이 많다고 하여 ‘궁들’ 또는 ‘궁평’ 이라고도 불렸다. 지금 이 마을은 궁평리이다.
- 삼남지방에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가는 길에 들렀던 길목으로 떡을 파는 상점들이 많아 ‘떡전거리’ 라고 불렸는데, 한자로 표기해서 병점이 되었다.
- 화성 이름의 유래는 정조가 1794년(정조18년) 수원부 읍치와 현릉원을 위호할 성곽의 터를 둘러 보면서 장자의 이 고사를 생각하면서 붙였다. 화인축성(華人祝聖) 화(華)라는 지방의 제후가 요(堯) 임금에게 부귀, 장수, 다산을 기원했다는 의미이다. 요임금 같은 성인이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다.
- 전곡리는 『한국지명총람』에 따르면 구봉산 앞 골짜기에 위치하여 앞실[前室] 또는 전곡(前谷)으로 불렸다고 한다. 또 『지명유래집』에 따르면 벼슬을 하는 부잣집이 많고, 한양에서 낙향한 세도 가문이 많이 살고 있어 ‘앞서가는 마을’이라는 뜻의 앞실[前室]로 불렸다가, 앞실의 전(前)자와 계곡이 많다는 뜻의 곡(谷)자를 사용하여 전곡리가 되었다고 한다.
-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무봉산 자락에 위치하여 소나무림, 굴참나무림, 상수리나무림 등 수려한 산림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동탄2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도심 속 산림휴양시설을 즐길 수 있다.
- 화성시 송산면은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부른 조용필 가수의 고향이다.

#화성시의 역사

- 만세길방문자 센터는 화성시의 3.1만세운동의 가장 격렬한 무력 항쟁으로 기록된 화수리 항쟁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화성3.1운동 만세길’은 방문자들에게 체험과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이다. 과거 우정보건지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9년 운영을 시작하였다.
- 1919년 4월 15일 일본 육군인 아리타 중위는 제암리 마을로 찾아와 마을 사람들을 교회에 가두고 마을사람들 23명을 무참히 죽였다. 스코필드는 제암리 마을 입구에 있는 동상의 주인공으로, 사건 발생 3일 후 현장을 찾아와 사진을 찍고 세계에 알렸다.
- 화성시 동탄신도시 동탄호수2길 25의 태봉산 정상에 있는 태실은 화성시 관내의 유일한 태실로, 선조와 인빈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정숙옹주’의 태실이다. 왕실에서 왕자, 공주, 옹주가 태어나면 길지를 정하고 태를 봉안 하던 곳을 ‘태실’ 이라고 한다.
- 1919년 화성시 송산면 사강시장 장날, 만세운동을 하다가 일본순사 노구치에게 총을 맞고 쓰러진 송산의 독립운동가는 홍면옥이다. 홍면옥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 2009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화성시의 용릉은 사도세자와 혜경궁홍씨의 무덤이다. 용릉은 사도세자와 그의 비(妃) 헌경의왕후를 모신 왕릉이다. 원래 서울시 배봉산 아래에 있었는데, 정조가 현재의 위치의 화산동으로 옮기고 병풍석과 다양한 석물들로 장식한 아름다운 묘를 조성하였다.
- 정조대왕이 총애하던 화가 김홍도는 화성시 용주사의 대웅전 안에 있는 ‘삼세여래후불탱화’는 조선후기 풍속도의 대가 단원 김홍도가 그렸다고 전해진다.
- 용주사 '승무' 시비는 조지훈이라는 시인이 상원사를 찾았을 때 승무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마침내 용주사의 행사에 찾아가 바라춤 추는 모습을 보고 쓰게 되었다고 한다. 용주사에서 조지훈이 여승이 춤추는 것을 보고 지은 시의 제목은 ‘승무’이다.

#화성시의 인물

- 노작 홍사용은 「나는 왕이로소이다」라는 시로 알려진 낭만주의 시인이며, 현재는 동탄신도시에 이 사람의 이름으로 노작 홍사용 문학관이 만들어 졌으며, 문학관 옆에 그의 묘소가 있다.
- 이옥은 조선 후기 파격적인 글쓰기로 정조의 문체반정의 희생물이 되었으나 그가 남긴 산문과 시는 조선 후기 문학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경향을 대변하는 가치를 지닌다. 이옥은 정조의 문체반정의 표적이 되어 경상도 삼가현으로 유배를 떠나기도 했다.
- 흥헌 선생은 1919년 만세운동의 보복으로 가해진 양민학살과 가옥소실에 대처해 자신의 산에서 건축용 목재를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흥헌가옥은 1870년에 지어진 이래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전통가옥으로 남아있다.
- 남양부사 윤계는 군병을 모아 대항했지만 중과부적으로 궤멸되자 관아의 뜰에서 적장에게 좀처럼 굽히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다가 적장에게 혀를 잘려 순절하였다고 전해진다. 남양읍에는 남양부사 윤계순절비가 세워져 있다.
- 원효대사는 661년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는 중 화성시 당성 근처에 이르러 토굴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원효대사는 한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눈을 떠 보니 해골에 고인 물을 마셨다는 것을 알고 토약질을 하였다. 스님은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어 당나라 유학길을 접고 신라로 돌아와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다.

#화성시의 지역자랑

- 용건릉은 2009년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엔에 속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 화성을 대표하는 8곳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모아 우리는 ‘화성 8경’이라고 한다.

제1경 용건백설(隆健白雪) : 용건릉 주위에 뽀뽀한 노송에 백설이 덮힌 풍경

제2경 용주범종(龍珠梵鐘) : 용주사 경내의 범종

제3경 제부모세(濟扶모세) : 하루에 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제부도 모세기적

제4경 궁평낙조(宮坪落照) : 궁평리 해수욕장에서 맞는 낙조의 아름다움

제5경 남양황라(南陽黃羅) : 남양간척지에 펼쳐지는 가을의 황금들판

제6경 입파홍암(立波紅岩) : 태고의 신비가 감추어진 입파도의 붉은 기암괴석

제7경 제암만세(堤岩萬歲) :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제8경 남양성지(南陽聖地) : 한국 교회 사상 처음으로 성모 마리아 순례 성지로 선포된 곳

- 화성시 팔탄면에는 지하 700미터 암반에서 솟아나는 천연수가 있다. 이곳은 천연 온천수로 소문났으며, 월문온천, 울암온천부터 6500만 년 동안 지하에서 숙성된 온천수를 자랑하는 곳으로 온천 여행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화성 온천단지가 있다.



- 엄미술관은 고 김성국 교수의 설계로 지어진 곳으로 원래는 엄태정 교수의 작업 공간이었다. 오랫동안 조각 작품을 연구하고 제작하며 살아온 사적 공간에 작가의 흔적을 담아 '집 같은 미술관이자 미술관 같은 집'이며 야외조각을 감상할 수 있다.
- 동탄호수공원은 호수를 따라 넓게 펼쳐진 잔디밭과 대규모 피크닉장, 피톤치드 숲 등이 있는 도심 속 웰빙공간이다. 컨테이너 브릿지를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특화벤치에서 안락하게 호수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 '햇살드리'는 햇살이 널리 퍼진다는 순우리말로 넓게 퍼지는 밝은 햇살과 천혜의 자연이 결실을 맺은 화성시의 고품질 농특산물을 뜻한다.
- '우리꽃식물원'에서는 사계절 내내 우리꽃을 볼 수 있으며, 외부 들꽃정원과 등고산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한옥 형태의 유리온실인 사계절관에서는 계절별 꽃과 열매를 일 년 내내 볼 수 있다.
- 남양성모성지는 한국 교회 사상 처음으로 성모 마리아 순례 성지로 선포된 곳이다. 아늑하고 성스러운 분위기여서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휴식과 산책을 취할 수 있는 안식처이다.
- 화성시에서는 중생대 백악기 시기의 원시적인 뿔 공룡의 하반신 뼈가 발견되었는데, 국제적인 학술가치가 인정되어 정식학명을 부여받았다. 그 명칭은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이다.
- 제비꼬리 길, 제부도를 일주하는 해안산책로의 명칭은 제비꼬리길이다. 해안가를 따라서 해안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시설과 포토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축제

- 화성시청소년진로박람회는 화성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 체험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축제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전문직업인 진로강연, 진로뮤지컬, 체험부스 등 다양한 진로컨텐츠로 구성되었다.
- 화성 송산 포도축제는 화성 송산에서 열리는 축제로 2005년 처음 시작으로, 화성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의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2025년 1월 1일 화성특레시가 출범하는 것을 기념으로 2024년 화성송산의 특산물의 판매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정조효문화제는 매년 10월 정조 효 공원에서 펼쳐지는 역사적, 가족친화적인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부터 정조대왕의 바램이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조선 최고 길지로 이름난 화성시 융릉으로 이전하고, 정조대왕 능행차까지 정조대왕의 효심이 꽃 핀 천하의 명당 효의 도시 화성시에서 펼쳐지는 대표 역사문화축제이다.
- '서커스살롱 페스티벌 인 화성' 축제는 저글링부터 외줄타기, 공중 서커스 등 서커스 공연과 직접 서커스를 체험해보는 워크숍, 체험프로그램, 포토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서커스 페스티벌이다.
- 제2회 화성시 도농어울림축제는 화성시·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도시-농촌 어울림 축제이다. 2023년 1회 축제에 이어, 2024년 9월 28일(토) ~ 2024년 9월 29일(일) 2일간 개최되었으며 각종 공연, 전국동요대회, 어린이 사생대회, 시민체험 행사로 이뤄졌다.
- 반석산에 자리한 시립 반석산 에코센터에서는 생태체험 및 교육을 운영한다.



#화성시의 지명

- 송산그린시티에 위치한 새솔동의 이름의 유래는 새로운 소나무처럼 항상 새로운 마을이라는 뜻으로 지어졌다. 새솔동의 지명은 화성문화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부여되었다.
- 마산포는 말이 건너왔다, 산세가 말을 닮았다 또는 마루개-으뜸을 뜻하는 마루-가 변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 전곡항은 지중해풍 엽서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푸른 바다와 하늘, 하얀 요트 그리고 유람선을 타고 근처의 섬까지 둘러볼 수 있다. 전곡항에서는 매년 뱃놀이 축제도 열리고 있다.
- ‘병점’은 떡전 거리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예부터 삼남(三南)으로 통하는 길목이어서 쉬었다 가는 행인들이 많았고 이들을 상대로 떡을 파는 떡장수들이 많아 마을을 ‘떡전거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문화, 유적, 관광

- 화성지역에서는 예로부터 많은 의례가 전승되었다. 화성 지역에서 전승되었던 의례는 모두 127개에 이르며, 여전히 계승되고 있는 의례는 30~40개 정도로 보고되었다. 화성 남양향교의 의례는 봄과 가을에 개최되는 석전대제(=석전제)이다.
- 용건릉은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능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가 합장된 융릉이 있으며 왼쪽에는 정조와 효의왕후의 건릉이 있다.
- 화성시 용주사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 세운 사찰이다. 정조의 효심이 깃든 용주사에는 부모의 은혜가 크고 깊음을 설명하는 불교경전 부모은중경을 봉인하고 있다.
- 정조효문화제는 화성시에서 매년 10월중에 용주사와 용건릉 일대에서 개최되는 축제로 화성시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고 효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행사이다.
- 다양한 기획전시가 열리는 소다 미술관은 종이접기 미술시간인 아트플레이를 비롯해 미술관 옆 텃밭학교, 보라리 바다공간놀이, 로한아트캔공작소, 플레이그라운드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술관이다.
- 공룡알화석이 발견된 곳은 적색 사암층지대, 시화호 일대에서는 오랜세월에 거쳐 집단으로 알을 낳고 서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의 고정리 공룡알 화석은 중생대 백악기의 화석이다.
- 2008년 전곡항 제방에서 발견된 공룡뼈 화석은 학명을 부여하기 전에는 “화성공룡”으로 불렸던 이 공룡은 화성에서 발견된 뿔이 달린 공룡이란 뜻으로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라고 학명이 붙여졌다.
- 사적 217호로 지정된 당성은 신라의 중요한 중국 당나라로의 무역항 역할을 했던 당성진을 보호하는 산성이었다. 당성은 백제시대부터 통일신라시기에 이르도록 중국과의 무역기지 및 국제교류의 중심지였다.
- 궁평해안은 해송과 모래사장이 조화를 이룬 천혜의 관광지로서 수령100년된 해송500여그루가 있어 한쪽의 동양화를 연상하게 한다. 특히 궁평낙조는 화성팔경의 하나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 반송동 행장골유적에서는 삼국시대(백제) 탄요가 발견되었다. 탄요는 숯을 구워내던 시설로, 반송동 탄요에서는 철을 만드는데 필요한 백탄을 만들었다고 한다.
- 남양도호부는 오늘날의 시청과 같은 곳이다. 남양도호부에서 수령의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의 이름을 내아 라고 한다. 내아는 지금도 남아있는 남양도호부 관아의 일부이다.